

모두 다워야 한다

사범대학 구 인 환

가을 하늘이 드높고 푸르다. 그렇게 극성을 피우던 홍수도 폭서도 계절 밀려 뒤로 가고 황금으로 물든 들판에 케이텍스가 시원하게 달리고, 도시인의 발길이 극장가에, 웰빙 휴식처에, 공항에 몰려드는 중추가절에 들어선다. 창공을 친송한 <청추수제>(이희승)나 가을 하늘 빛 청자를 찬미한 <청자부>(박종화)의 빛으로 이 강산을 수확의 기쁨에 넘치게 하는 푸른 하늘이 치솟은 도시의 아파트의 삭막을 어루만지고 있다.

이런 좋은 가절에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잘 살고 있는가. 정말 사는가 싶게 삶의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사실 한국과 같이 다는 아니라도 넓고 좋은 집에서 잘 입고 내놓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행복 지수 37프로에 지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해외관광 1,000만 명에 이르고 인터넷, 핸드폰 세계 1, 2위요 영화 <왕의 남자>가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를 재치고 1,240만 명 관객이 몰려들고, <괴물>이 개봉 21일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하여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영화 쿼터제가 무색하게 약진하는 것이나, 귀여니의 장편 소설 <그놈은 멋이 있었다>, <늑대의 유혹>이 400만 부가 팔리며, 한 무명 수필가의 인터넷의 공개로 <다빈치 코드>의 분쟁을 잠재우는 신기한 나라이다. 커루 소쌍의 부진이나 까르프 철수의 유통 서비스, 코카콜라 등 식료사업의 부진을 가져온 소비 함수를 점칠 수 없는데 놀라고 있다. 문화의 차이는 있다고 해도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부쩍대는 활기에 넘치고 가는 곳마다 건설의 소리가 요란하고, 수출입으로 항구가 붐비고 있는데서도 한국의 실상을 볼 수 있다.

세상이 정신없이 돌아간다. 아날로그 시대에 살아오다가 디지털의 초침단의 격

변 속에 초로 움직이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시대에 살기가 쉽지 않다. 흑백 사진과 같은 전통과 순수, 그리고 관습이 조화된 삶의 보금자리가 산업화와 정보화가 어울어진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mechanics 기계산업과 electronics 전자산업의 합성)에 인공지능 전자기술(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의 발달로 간편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급변하고 있다. 생산이 자동화되고 시공을 넘어 모든 것이 데이터 베이스화되어 온라인 서비스가 시대가 활짝 열리어 살기 좋은 세상으로 급변하고 있다. 작게는 예약 서비스까지 하는 취사 세탁 녹화에서 크게는 대 생산라인의 자동화, 로켓에 이르는 모든 것이 이 메카트로닉스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서운 변화의 첨단에 한국이 서 있다.

한국은 세계 경제학자가 풀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 경제 10위에 들어선 기적의 나라이다. 선망의 나라다.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 미국 잉여농산물의 힘으로 보리 고개를 넘고 5·16 혁명 때 불과 국민 소득 백 달러도 안 되고 수출은 일억 달러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에서 40년 만에 국민 소득 1만 4천 달러를 넘고 수출 3천만 달러를 바라보는 월 2,850억 달러를 하는 신화를 창조하고 있다. 국민 소득 천 달러, 수출 백억 달러를 달성하는데 5개년 경제계획과 새마을 운동을 20년 가까이 해서 달성하는데 그 뒤 불과 20년에 생산과 수출 대국으로 발전했는지 놀라운 일이다. 지상파 TV를 넘어 요술쟁이 같은 IPTV 시대로 접어드는 것을 위시한 미국까지 점령해가는 전자 세계 1위요, 단위공장으로 포항 제철이 세계 1위, 세계 1위에서 5위까지를 독차지한 조선 세계 1위, 미국과 중동을 석권하고 있는 자동차 세계 5위, 경비행기를 수출하고 초음 전투기를 생산하는 항공산업의 선두에서 서서 테크노피어와 에너토피어에 들어서고 있으니, 선(先) 경제 후(後) 민주화의 개도국 발전 모델로 싱가포르와 같이 단 두 나라가 성공한 나라이다. 도시 빈농층과 농촌의 문제가 있기는 해도 80프로이던 농민이 8프로로 줄어든 산업국으로 약진하고 있는지 세계가 놀라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사회가 시끄럽게 요동치고 있는가. FTA으로 표상되는 통상 압력과 고유가, 그리고 북핵 위협 등 외적 요인과 바다 이야기와 같은 여러 게이트,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갈등과 부조화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자율화 속에서 글로벌 시대에 성장해야 할 각종 규제와 낯설

은 정책으로 마음 놓고 일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어두운 광장에서 방황하고 있다. 잘못하면 걸만 번지르르하고 속이 빈 강정의 어두운 그림자에 가릴지도 모른다.

마음먹으면 일어서 산이라도 들어올리는 저력을 가진 한민족이 그대로 격랑에 휘둘러 방황할 수는 없다. 정치적 격랑과, 노사의 분규, 교육의 평준화와 학원 과외의 열풍, 부동산 투기의 파도, 고용 불안과 대량 실업, 농촌의 부채와 활성 등 산적한 문제를 조절하고 해결하여 재도약하는 한강의 제2기적을 창출하여 동방의 등불이 켜진다는 시성 타골의 예시를 가시화 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모두가 다워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갈등과 혼돈은 모두가 제 자리에서 답지 못하는 데서 야기되는 현상들이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그 위치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 자리의 품격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일에 전력을 다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국민은 국민답게, 기업인은 기업인답게, 근로자는 근로자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언론인은 언론인답게, 교수는 교수답게, 장관은 장관답게, 청와대는 청와대답게, 법관은 법관답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살면 질서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전력을 다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민노총이나 전교조를 비롯하여 수십 개의 시민봉사단체들의 배타적이고 비타협적인 막무가내식 파업이나 언론 플레이는 다 자기 위상의 답지 못한 행동에서 온 것이다. 행정부의 내각 공보에서 할 일을 발표하면서 얼굴을 드는 청와대는 청와대답지 못하고, 북한 수재민을 위해서 한국 농민의 부채의 상당한 액수에 해당하는 3,200억가량의 쌀과 기계 등을 원조하는 것도 국민의 합의를 경시한 적십자답지 못한 일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옆에서 보필하는 것으로 입법, 사법, 정부, 헌법 기관과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 한국 수해 복구와 부채에 시달리는 농민의 배려 없이 그대로 지원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한 적십자답지 않은 일이다. 김찰이나 판사의 비리나 자꾸만 터지는 게이트 사건도 모두 그 위치에 답지 않은 일탈현상이다. 권력이나 재력의 일탈에 이권을 따라 다르고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도 답지 않은 곱지 않은 모습이다. 비도덕적으로 대부업을 하거나 왜설과 사행심으로 사육을 차리는 악덕업자들도 다 답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조화 속의 집안이 화목하면서도 자녀교육과 자아성취의 내일을 향해 순풍을 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그 가정은 균형을 잃어 결국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관습과 질서 속에서 책임을 지며 전력을 다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시민답게 살아가는 길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면서 꿈을 가지고 내일을 지평을 그리며 살아가는 만물의 영장이다. 사회와 국가는 국민이 한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아가 그 무엇을 성취할 수 있게 밀어줄 책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사회답게 국가답게 질서와 서포트를 할 때 국민들이 그다운 것을 우러르고 국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선진 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